

2019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2주

숲 조성 이야기에 탐방객들 귀 쫓긋

■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 / 정수영 박사 “우리나라에서 삼나무 조성 가장 잘된 곳”

1일 오전 사려니숲에는 주말을 맞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보내려는 탐방객들로 가득했다. 지난밤 살짝 내린 비로 인해 미세먼지가 가라앉아 숲의 공기는 다른 날보다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다.

이날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야생대 산림연구소 정수영 박사가 탐방객들을 숲의 세계로 안내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삼나무가 제일 잘 조성된 곳이 이곳 사려니숲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조성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 또한 이곳 사려니숲입니다”며 탐방객들을 안내했다.

탐방로를 따라 걷자 울창한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탐방객들을 맞이했다. 정 박사는 “삼나무는 성장 속도가 다른 나무에 비해 빨라 1930년대

부터 이곳에 많이 조림됐다”며 “지금 삼나무의 꽃가루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편백나무 위주로 조림된다”고 설명했다.

숲의 전경을 감상하며 걷다 서어나무가 나타나자 정 박사는 걸음을 멈추고 숲의 조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숲의 조성되는 순서에는 먼저 풀이 자라고 침엽수인 소나무 등이 제일 먼저 자랍니다. 그 이후 상록활엽수가 뒤늦게 자라게 되는데 이 활엽수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강한 나무가 살아남습니다. 상록활엽수 중 가장 강한 나무가 이 서어나무인데, 이 나무가 나타났다면 그 숲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숲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본래 물참오름 입구까지 예정됐던 이날 코스는 탐방객들의 요청과 정



1일 탐방객들과 함께 사려니숲길 체험에 나선 정수영 박사가 탐방객들에게 숲 조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김현석기자

박사의 열정이 더해져 물참오름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직장 동료와 함께 전문가 탐방에 참여한 양경숙(55·용담동)·김정희(52·삼도1동)씨는 “평소 사려니숲을 여러번 찾아오긴 했지만 숲

의 경치 등을 막연하게 구경만 했었다”며 “오늘 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걸으니 숲을 더 자세히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북&토크 콘서트 / 오하나 동화작가

“사려니숲에서 詩를 짓는 즐거움 배우고 돌아가세요”

“숲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나무, 바람, 햇살, 곤충, 잎사귀 등 다양한 숲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사려니숲에서 시를 짓는 즐거움을 배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주에서 시를 쓰고 있는 오하나 동화작가는 2일 오전 붉은오름 입구 특설무대에서 열한번째 사려니숲 에코힐링의 ‘북&토크 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마주했다.

오 작가는 관객들과 사려니숲과의 교감을 통해 시 짓기를 제안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오 작가의 제안에 가우뚱했다. 시 짓기란 자리에서 똑딱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 작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를 주고 받지 않나”라며 “눈 뜨고 잠들기 전까지 수없이 말을 하고 사는데 왜 시를 지어보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25살이 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시를 지어 본 적이 없다”며 “시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며, 난해한 말로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써서 지어야 할 것 같고, 문학을 전공한 사람만 해야 할 것 같았다. 시와 나 사이에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며 일본의 시인 가네코 미스즈의 대표작들을 낭독했다.

‘아침놀붉은날/풍어다/점정어리/풍어다/황구는 축제로/들떠 있지만/바닷속에서는/몇만 마리/정어리의 장례식/열리고있겠지(시 ‘풍어’)’

뒤이어 오 작가는 관객석에 앉아 있는 ‘꼬마 예비 시인’들과 함께 시 짓기에 도전했다.



오하나 동화작가가 2일 붉은오름 입구 특설무대에서 열린 ‘북&토크 콘서트’에서 탐방객들에게 사려니숲과의 교감을 통해 시 짓기를 제안했다. 강희만기자

가장 먼저 도전한 문지원(11·제주시 화북초)양과 오 작가는 “숲”을 주제로 시 짓기에 들어갔다.

“사려니숲에는 어떤 꽃들이 있을까(오 작가)/빨간꽃, 노란꽃, 파란꽃들이 많이 보여요(문 양)/꽃을 보니까 마음이 활짝 웃는 것 같아(오 작가)”

뒤이어 도전한 이태은(12·서울 송화초)양과는 ‘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꽃들이 피니까 벌과 나비들도 어디선가 날아와(오 작가)/벌은 무성

지만 나비는 좋아요(이 양)/벌도 언젠가는 좋아질까(오 작가)/언젠가는 겁이 없어지겠지요(이 양)”

가네코 미스즈의 작품처럼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서 미소가 저절로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감성’들이 숲을 가득 메웠다.

오 작가는 “시 짓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 꽤 재미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다”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국토부 11일 제주도 항공일자리 설명회 8개 항공기업 참여해 채용계획·취업 노하우 제공

국내 8개 항공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항공일자리 설명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부산(6월 3일), 광주(6월 5일) 제주(6월 11일) 지역을 돌며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기업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8개 기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여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이 하반기 공개 채용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채용 면접 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 기업 선호 인재상, 대내외 이슈사항 등 실제 면접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최근 입사한 사무직,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10여명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준비 과정부터 입사 시까지의 노하우와 생생한 취업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부미현기자

중문해수욕장 실시간 이안류 감시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일부터 중문해수욕장을 비롯해 전국 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離岸流·Rip current)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몰려든 바닷물이 바다로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해변이 탁 트인 바다에서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해 물놀이객을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순식간에 휩쓸고 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1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충남 대천, 제주 중문 등 6개 해수욕장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올해는 부산 임랑해수욕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중문과 해운대, 대천해수욕장의 경우는 기존 이안류 감시 카메라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실시간 감시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자체, 소방본부, 해양경찰, 현장 구조대원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송은범기자

‘한국 100대 병원’에 제주대병원 55위 기록

미국 ‘뉴스위크’지 발표

제주대학교병원이 ‘월드 베스트 병원 2019’ 평가에서 세계 1000대 병원 및 한국 상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간 의료 전문가의 권고, 환자 설문조사 결과 및 의료 성과지표, 환자 만족도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계 우수 병원 1000곳을 선정, 발표했다.

주요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다.

뉴스위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93.1점)이 국내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이어 삼성서울병원(92.8점), 서울대병원(92.4점), 연

세대세브란스병원(90.4점),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90.0점)이 차례로 2-5위를 기록했다.

지방대학병원으로는 전남대병원(87.0점)이 11위로 가장 높았다.

제주대병원(80.8점)은 55위에 올랐다. 도내 거점병원으로서의 우수한 진료 및 연구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백금탁기자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인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